

# 익산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 유치활동

### 기업지원책 · 투자절차 등 설명 회원사의 익산이전 많은 협조 당부

익산시가 5일까지 사흘동안 중국 청도를 방문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내복귀 · 유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익산시청 관계자를 포함 전라북도 청 관계자 2명 등 6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출장단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출신 기업을 찾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먼저,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를 방문 방문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과 함께 세계경기, 중국 및 익산의 경영환경 등에 대해 회담을 나누었다.

또한 익산시와 전라북도 관계자들은 기업지원책, 투자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회원사의 익산이전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익산시 · 전라북도 투자협약을 맺고 투자를 진행 중인 G사와 건축중인 주얼리 임대공장에 입주 예정인 2개 기업(H사, S사)을 차례로 방문하여 대표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는 현재까지의 주얼리 임대공장 건축사항을 설명하였으며, 투자진행을 촉구했다.

투자협약을 했던 H사는 현재, 국내에서 임대공장의 완공과 동시에 생산 활동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 30여 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설비투자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 하였고, S사는

중국 현지 경영상황을 밝히며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번 중국출장시, 투자의향을 밝혔던 회원사들을 재방문하여 내년도 주얼리 임대공장 건립사업에 대한 계획과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기업지원책, 투자절차 등에 대해 간담을 가졌다.

이 중 2~3개 기업이 자체 여건 및 선도기업인 H사의 투자 성공 여부를 지켜보며 산업단지 분양 또는 임대공장 입주, 아파트형공장인 집적산업센터 입주 등을 올 연말까지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가시적 성과도 거두었다.

이상춘 문화산업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투자의향을 밝혔던 기업들이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의 기업환경과 지원책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적극적 유치활동을 펼쳤다"며 "익산시가 기업유치를 원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 관심을 보인다"며 해외진출기업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관계자는 "중국 내 각종규제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내 우리기업들은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이동을 두고 저울질 중이며 기업하기 좋은 익산으로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 군산시, 재난피해 대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출범

군산시는 5일 기존 관 주도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가졌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12개 유관기관과 군산기압환경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9개 민간단체,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평상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위협요소 · 취약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인적 ·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등 재난복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위원들에게 위



촉장을 수여하고 민간대표 공동위원장을 선출했으며 기관 및 단체별 역할과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재난 예방에서 수습 · 복구단계까지 선제적인 대응력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시 - 군산대, 지역경제 위기극복 협조체계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애용 협약식 가져

군산시(시장 김임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5일 시청 면담실에서 시 관계자와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을 비롯한 양한 계획과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기업지원책, 투자절차 등에 대해 간담을 가졌다.

이날 두 기관은 지난 9월 3일 판매를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품권 애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광병선 총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군산대학교에서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는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물품 구매 등 군산사랑상품권 애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3일 판매를 시작한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시,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는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이거나, 복지급여수급 중인 한 부모 가정의 자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부모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시, 지역 도의원과 경제위기 극복 정책간담회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5일 도의원(김종식, 나기학, 문승우, 조동용)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항민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위기에 빠진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력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확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중소형 선박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해상서식장 조성사업 ▲전북산학연용융혁신센터 구축사업 등의 사업들에 의견을 조율했다.

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물년경영체육성 시설 · 장비 지원 ▲국산패아 및 엿기름 가공 특화사업 ▲중소농 농산물 안전 · 유통 지원사업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다각화 및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복 부시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일환으로 국비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전군간 벚꽃 100리길 복원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군산시와 부안군, 어업인간의 갈등으로 장기 표류중인 비안도 ~ 가력도 도선운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도 차원의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도원들은 이들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정치권과 행정의 힘을 합쳐서 군산이 하루 빨리 활기를 되찾고 튼튼한 경제자립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나 국회대응을 위해서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참여연대, 재량사업비 관련 시의회 전체의원에 공개질의

### 25명 의원 가운데 2명만 폐지에 찬성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전체 25명의 의원 가운데 정의당 소속 2명만이 이른바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수원사업비)' 폐지에 찬성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익산시의원 전체의원 25명에 2차례 (1차 8월 21일, 2차 29일 설문지) 찬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는 것.

특히 응답한 시의원들 가운데 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은 재량사업비 유지를 원했고, 김수연 · 유재동 등 2명의 정의당 소속 의원만이 폐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무려 17명의 의원들은 답변을 아예 회피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7대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 공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재량사업비 폐지요구에 익산시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편성과 집행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한 8대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나만 받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폐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만큼 당론으로 결정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소연 한다"며 "재량사업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정당의 당론을 근거로 익산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익산=우병희기자

###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 계도

익산시가 양대 전곡체전을 맞아 익산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깨끗한 익산시

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다가오는 양대체전을 대비한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읍 · 면 · 동 일제청소의 날을 운영해 민 · 관 합동으로 관내 주요도로 및 공한지

등 청소취약지역 대청소를 실시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다가오는 전곡(장대)체전과 추석명절을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계도 및 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기간: 2018. 9. 10. ~ 10. 5.)

익산시 청소지원과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의 상시 단

속반 외에 특별단속반 2개 팀을 추가 편성하여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과 숙박업소 및 음식점소와 같은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순회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